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바쁘지 않은 사람, 시간 있는 사람이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지만 하지 시간 있다는 사람은 없다. 지위와 나이, 성별에 상관 없는 일이다. 신기한 것은 일에 때여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이 절대적 결핍감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은 확실하다. 자신과 주변 사람, 심지어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우울감과 불행감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있다'와 '없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마치 물건처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

시간을 알아 보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시계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시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의 개념을 숫자로 나눠서 표시한 것일 뿐, 시간 그 자체가 아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시간이 삶의 절대적 조건이며 형식이고, 시간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시간이 가진 거대한 힘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단 5분, 그 순간의 영원함에 대하여

과도한 관심과 집착 또한 시간의 힘에 저항하려는 인간적 욕망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부질없음을 누가 모를 것인가. 알면서도 시간을 거스르기 위해 서 엄청난 시간을 쓰는 사이에 시간은 사라진다. 소유되지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어느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시간의 본질이다. 이 불잡을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와 니체, 성별에 상관 없는 일이다. 신기한 것은 일에 때여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이 절대적 결핍감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은 확실하다. 자신과 주변 사람, 심지어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우울감과 불행감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있다'와 '없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마치 물건처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

시간을 알아 보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시계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시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의 개념을 숫자로 나눠서 표시한 것일 뿐, 시간 그 자체가 아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시간이 삶의 절대적 조건이며 형식이고, 시간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시간이 가진 거대한 힘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은 그저 순간순간의 연속일 뿐이지 않을까. 삶과 죽음의 차이가 말 그대로 한 순간에 있음을 직접 체험한 도스토옙스키는 시간이란 자유 의지를 실현하는 조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의지에 의한 어떤 행위도 없이 그저 살아온 수십 년 또는 평생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다. 도스토옙스키가 처형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겪었던 '살아있는 5분'은 그의 삶을 근원적으로 재구성하는 절대적 시간이 되었다.

일상에서 5분은 눈 깜짝할 사이이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절대성을 획득하는 영원한 시간이 되었다. 이 5분은 도스토옙스키가 살아왔던 어떤 시간보다 더 깊고 길게 확장되는 시간이었기에 "무한대의 시간이고 엄청난 재산처럼 여겨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5분 동안 많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5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한다. 그가 삶의 마지막 5분을 나눠서 쓰기로 한 일은 세 가지, 동료들과의 작별에 2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2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다. 이 5분의 길이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계로 짚 수 있을 것인가?

도스토옙스키는 매 순간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한 세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한 세기의 삶을 사는 것은 5분이라는 '지금'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숫자로 표시되는 '지금'의 길이를 연장하

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순간이 지닌 가치를 더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삶을 사는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도 누구에게나 5분은 남아 있다.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있다는 뜻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절대적 시간으로서의 5분은 당연히 시계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실존의 시간이다. 삶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대적 가치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시간은 채워지거나 덧없이 사라진다. 5분이 덧없이 사라져 버린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살지 않은 채 버려진 삶'과 행위로 나가지 못한 의지의 파편들이다. 바로 사라져 버린 이 5분의 연속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5분의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현재'가 쓰이지 않은 채 낭비된 탓이다. 지나온 시간과 삶이 덧없이 느껴진다면 방금 덧없이 보내 버린 5분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각자의 삶에서 5분이 갖는 가치는 전적으로 개별적인 것이기에, 이 시간 또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고유한 길이를 갖는다. 그러나 타인의 시계에 우리 자신의 시간을 맞추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대기업 투자’ 급물살 타는 광주 완성차 공장

광주시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연산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연봉을 기존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국내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현대자동차가 광주 투자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단체 출신인 윤장현 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차로부터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합작 방식의 독립 신설 법인에 여러 투자자 중 일원으로 지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았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현대차는 비(非)지배 지분으로 참여해 완성차를 위탁 생산할 방침이며, 광주시와 사업 타당성 등을 협의한 뒤 투자 여부와 규모, 생산 품목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의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투자자들 중 처음으로 신설 법인에 대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완성차 생산 법인 설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광주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협단을 꾸

려 현대차의 의향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의 투자 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부품 업체와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규 법인 설립이 현실화돼 자동차를 생산하면 파급 효과가 막대할 전망이다.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신규 공장은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 1만2천여 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사업 참여에는 윤장현 시장이 추진해 온 평균 연봉 4000만 원 수준의 적정 임금과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화형 협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오던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밀어붙인 윤 시장의 '뚝심'이 임기가 된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노조 반발 등 변수가 적지 않은 만큼 노사민정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값싼 전복 드세요” 어민도 돕고 일석이조

값비싼 해산물의 대표로 꼽히던 전복. 이제는 옛말이 된 듯하다.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에서는 지난해의 반값에 전복을 내놓기도 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매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6년 전 6000여 톤에서 1만 6000여 톤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3000 톤 가까이 더 생산될 전망이다. 최근엔 중국마저 전복 양식을 크게 늘려 판로(수출)도 막혔다. 해외 수출이 아주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싸져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복이 역대 최저가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급 해산물이던 전복을 저

렴한 값에 먹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울상이다. 특히 전복의 주산지 완도군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완도군은 국내 전복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복 가격 폭락으로 완도군은 지역별 향우회, 정부 기관·단체, 주요 공사·공단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 지역 마트에서도 전복 어가를 돕기 위해 전복의 기존가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인 등 영양이 풍부하다. 이번 기회에 값싸고 몸에 좋은 전복으로 보양도 하면서 양식 어민을 돕는 것도 좋겠다.

법조칼럼



이정훈 변호사

2017년 연말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모임이나 술자리를 가든 화제였다. 지인 중에 누구는 일찍부터 400만 원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2000만 원까지 올라서 네댓 배를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이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묻지마 투자나 투기이라며 불신하는 입장과 주식과 같은 정상적인 투자의 하나로서 자신도 한번 비트코인 투자를 알아 봐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가상 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투기 광풍이 거세진 이후 정부 내에서는 가상 화폐를 현금, 주식과 같이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가상 화폐, 투기인가 투자인가

부처 간 이견과 혼선이 있었다. 가장 부정적이었던 법무부의 경우 박상기 장관이 직접 '가상 화폐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 징표'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규정하면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실명 확인만 한 계좌만 추가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비실명의 경우 기존 계좌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의 최신 ICT 관련 기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만 보고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대법원이 흥미로운 형사 판결을 선고하였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

한 몰수 및 추징금 6억 9587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비트코인도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가상 화폐가 현행 제도의 틀에서도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첫 사법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범죄 수익 몰수뿐 아니라 가상 화폐와 관련한 분야의 제도·정책에 변화가 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산적 가치를 띤 다른 재화처럼 가상 화폐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가상 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

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가상 화폐에 관하여 일반 화폐의 기능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일부' 기능 및 재산 가치만을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만 가지고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및 금융 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것은 선부르며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은 투자와 투기의 양면성을 가진 불안정한 화폐의 일종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규제(자금 세탁 방지, 탈세 방지)를 통해 투기나 범죄적 요소를 완화·억제시키고 개인이 묻지마 투자를 하여 피해가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활성화·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기고



최범채 시열병원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방문하면 의아해 한다. 병원에 조성된 화단 때문이다. 주차장에서 병원 전체 면적 중 3분의 1이나 되는 화단을 거쳐 병원 내부로 들어서는데다 곳곳에 놓여진 수십 개의 대형 화분이 불거리를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수목들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병원은 2000년에 개원했다. 고맙게도 많은 지인들이 개원 축하 메시지와 함께 화분을 보내 왔다. 훈훈한 정(情)의 표시였다. 나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하게 물과 영양제를 주면서 정성껏 관리해 왔다. 한 3개월 정도 지난 뒤였을까. 상당수 화분의 꽃과 나무가 노랗게 탈색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들은 이내 말라빠지고 고사해갔던 것이다.

비록 화분에 심었을 망정 나는 나무를 친구처럼 여겼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나와 생명의 호흡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꽃과 나무, 그리고 건축물의 존재

맡았다. 개원과 동시에 들이닥친 난관들이 내 삶을 옥죄는 동안, 나는 늘 나무에 의지해 위로를 얻고자 했다. 가까스로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동안 내가 가꾸던 화분들은 시들거나 죽어 갔다.

1년여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날, 화분을 살피다가 작은 화분의 공간 안에 제법 큰 스티로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아! 이것 때문에"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버무려놓은 허구였으며 가식이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흙에서 양분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화원 주인이 그 눈물겨운 나무들의 사투를 막아 버린 것이다.

이 장애물은 나무를 키우고 성장게 하는 화분의 역할을 명백히 방해하고 있었다. 인간의 상업적인 욕심이 그때만큼 알파하게 보이던 때가 또 있었을까.

나는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분갈이를 성실히 해주십시오." 나무를 살리기 위한 내 의지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으리라. 본의 아니게, 이러한 나의 간절한 요구로 인해 직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도 모른다.

그 때문인지 개원할 때 축하의 의미로

받았던 나무들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여태 늙름하게 살아 있다. 내 삶에서 이 나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는 아무도 모르리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한 가족으로 오래오래 남고 싶어서 늘 때마다 잎을 땀어주고, 물을 주고, 영양제를 놓아 주고, 분갈이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끔 병원 곳곳에서 숨쉬는 나무들의 모습에 눈길을 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시들어 가는 나무에게 한 가닥 안쓰러운 눈길을 쏟을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따름이다.

맨 처음 병원을 설계할 때의 일이다. "병원 전체 면적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에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내 말에 건축설계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용적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대뜸 던진 말이다.

요컨대 병원 부지가 교통의 요지이므로 최대한 상업적으로 설계하자는 의견이었다. 일리 있는 말이었지만 나는 반대했다. 이는 도시에서 건축물이 존재해

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이다.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푸른 생명이 넘실거리는 화단이 제격이다. 그것이 건축물의 용도에 걸맞은 가장 이상적인 배치가 아닐까.

건축설계사의 조언대로라면 1층에 주 거대 은행이나 황금알을 낳는 약국을 입점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나는 상업적으로 싸야 할 공간을 모두 정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화초와 나무들은 병원 안의 공기를 맑게 함은 물론이요,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역할까지 한다. 어쩌면 이처럼 엄청난 선택으로 남들과는 전혀 다른 병원 건축을 고집한 덕에 지금껏 망하지 않고 버텨왔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화단의 초록 식물들을 볼 때마다, "건축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예술품이다"라고 혼자 뇌까리곤 한다. 건축주는 건축을 통해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뜻과 비전을 호흡하는 것이다. 그럴 때라야만 건축물은 자신의 인생 그리고 남아 있는 인생까지도 담아내는 기억의 나이트메로 길이 남을 것이다.

無 等 鼓					
<p>요즘 프랑스에선 '진짜' 스파이더맨이 인기다. 아프리카 출신 22세 청년 마무두 가사마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 5층 발코니에 매달린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맨손으로 아파트 벽을 타고 올랐다.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에게 도움을 손을 뻗친 가사마는 프랑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p> <p>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 '의인'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p>					
이기적 유전자					
<p>자배를 이겨 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지만 '생존'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고 궁극적인 목표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p> <p>그래서, 목숨을 건 희생은 더욱 각별하다 하겠다. 그중에서도 낯선 타인을 위한 희생은 더욱 그렇다. 대가가 보장되지 않은 희생은 더더욱 특별하다. 유전자의 목적 또는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순간, 기꺼이 또는 고심 끝에 '희생'이라는 결단을 내린 의인들을 우리가 회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다.</p> <p style="text-align: right;">/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p>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p> <p>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td> <td>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td> <td>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5) </td> <td>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